



임실읍 김홍문씨, 어려운 이웃에 100만원 기부

임실읍에 거주하는 김홍문씨(85)는 최근 임실읍사무소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김홍문 어르신은 "지난 어린시절 학비가 없어서 제대로 졸업을 못한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아직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조금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됐다"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상덕 임실읍장은 "작년에도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경로당 리면 지원 등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랑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면, 소중한 성금은 어려운 이웃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레드향으로 전한 '따뜻한 나눔'

신태인읍 천단마을 김삼곤 이장, 직접 수확한 레드향 대구 수성구에 전달

신태인읍 천단마을 김삼곤 이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감염증 극복을 위해 대구지역에 레드향을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9일 시에 따르면 김 이장은 자신이 직접 수확한 1천 600만 원 상당의 레드향 골드를 정읍시 자매결연 도시인 대구 수성구에 전달했다. 김 이장은 최근 대구지역 코로나 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해 마스크를 기부하고자 했으나 마스크 구입이 어려워 직접 수확한 레드향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레드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진료 현장의 의료진, 근무자, 봉사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 이장은 "코로나 19로 받았없이 고생하고 있는 대구지역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국민의 건강과 경제를 위협하는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이 아픔을 이겨내고 힘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이양원 기자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레드향의 풍부한 비타민 C가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만큼 레드향이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이양원 기자



인월 의용소방대,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 활동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 소속 인월의용소방대(대장 서우교, 이미숙)가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에 나서며 칭송받고 있다. 의용소방대의 방역활동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자체적으로 나서서 시장,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집중 방역소독과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숙 여성대장은 "의용소방대원들이 방역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의 만듦기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공무원, 코로나19 극복 헌혈 동참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소방관들이 장기적 사태로 확산된 코로나19에 혈액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태에 도움이 되고자 9일 헌혈에 나섰다. 관계자에 따르면 남원소방서 소방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헌혈자가 급감하면서 전국적인 혈액수급의 어려움을 알고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자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이번 헌혈은 전북혈액원에서 헌혈버스 지원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이뤄졌으며 20여 명의 소방공무원 및 소방보조 인력이 동참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의용소방대, 마스크 배부 약국 인력지원

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가 마스크 보급 5부제 실시와 관련하여 원활한 공급을 위해 순창군 마스크 배부 약국 10개소를 대상으로 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력지원은 공평한 마스크 보급을 위한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실시됨에 따라 많은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실시 되었으며 마스크가 배부되는 오전 시간(10-12)과 오후 시간(14-16)으로 나누어 순창 의용소방대원 40명이 각 약국에 2인 1조로 배치될 계획이며, 배치된 인력은 원활한 수급을 위한 행정지원과, 올바른 마스크 구매 원칙을 안내하고 홍보하게 된다. 김현철 순창소방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군민들의 마스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일손이 부족한 곳에 적극적인 도움으로 소방 차원에서라도 아낌없는 지원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한편 순창 의용소방대는 총 22개대 49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순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소방산하 자원봉사단체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익산 영등1동 찾아가는 복지 바구니 눈길

영등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한주, 김경화 등)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복지 + 건강파트너' 선도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바구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복지바구니는 식품·생필품을 담은 바구니(5만 원 상당)로 꾸려져 '복지+건강' 서비스 정보 안내문을 함께 담아 사회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종사자 및 방문보건간호사 등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방문 상담이나 행정복지센터 내방시에 지원한다. 이 사업은 대상자의 기초생활유지뿐만 아니라 가구 방문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을 낮춰 발굴 대상자와의 접근성을 높이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복지 + 건강파트너' 사업의 활성화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서비스 범위로 이끌기 위함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정읍 내 8개 농축협 조합, 코로나 극복 성금 4천만원 전달

NH농협 정읍시지부(지부장 이용균)는 지역 내 농축협과 함께 9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코로나 19 극복 성금 4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NH농협 정읍시지부장을 비롯한 지역 내 8개 농축협조합장(정읍농협 유남영, 칠보농협 권혁민, 황토현농협 김재기, 신태인농협 김성주, 샘골농협 허수중, 태인농협 한삼곤, 정읍원협 이대건, 순정축협 고창인)이 참여해 성금을 전달하고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용균 지부장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지역경제가 침체 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탁을 결정했다"며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시는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편,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코로나 19 극복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익산 신동지구대, 주민 체감 만족 치안 활동 강화

익산경찰서(서장 임성재) 신동지구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관내 주민들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보다 평온한 가운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주민 마음을 헤아리는 순찰과 거점 활동을 가시적으로 전개하여 진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신동지구대 관내는 대학로와 대형마트, 먹자골목, 율림 밀집지역 등 전형적인 도심형 치안이 유지되고 있는 곳으로 대학로와 먹자거리의 중심으로 하는 지구대 직원들의 24시간 부단한 순찰과 거점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현장 주민의 소리를 실시간 수렴, 치안 시책에 즉각 반영하는 시스템을 가동중에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장수보건의료원, 명품잇몸 지원사업 추진

장수군보건의료원은 명품잇몸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9일 의료원에 따르면 명품잇몸 지원사업은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흡연자에게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치주염을 예방하고, 금연연속자의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금연클리닉실에 등록된 12개월 성공자며 구강상담 및 검진, 개인양치교습,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을 실시한다. /장수=고광호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